

조선후기 세시풍속과 의학 - 『醫方合編』 月行을 중심으로 -

한국한의학연구원¹
오준호^{1*}

A Study on Annual Cyclical Rituals and Medicine in the late Joseon Dynasty - With focus on *Uibanghappyeon* 'Wolhaeng' -

Oh Junho^{1*}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 : This study considered the annual cyclical rituals related to medicine in an effort to look into the general medical conditio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Method : This study selected *Uibanghappyeon* 'Wolhaeng' as its research material in that it reflects the medical conditions at that time as a writ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a record about annual cyclical rituals included in a medical book. The annual cyclical rituals are possible to analyze from various angles, but this study perceives the fundamental elements forming the annual rituals as ① the time when a ritual was held ② purpose, ③ method, and analyzed the calendaric rituals by dividing them according to the three elements.

Result : There appear 97 sorts of annual rituals period in all according to their contents in *Uibanghappyeon* 'Wolhaeng.' ① the case of directly suggesting a specific day like May 5 was found to be the most with 46 cases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 of the implemented time, followed by the part (16 cases) with the sexagenary cycle like the Day of the Ox. ② From the aspect of the purpose, the case of aiming at preventing diseases was found to be the most with 24 cases, and the case of expressing 'having to do like that' without any clear reason, or 'that would be better' was found to be the third-most 19 cases. In a broad sense, should these two be perceived as disease prevention, these statistics accounted for a half of the whole with 43 cases. Meanwhile, the style of rituals whose purpose was disease treatment(22 times) was to make a medicine on a specific day. Among the 22 sorts related to disease treatment, 16 sorts were the custom of making medicine on a designated day. ③ When classified from the aspect of methods, they can be divided into pharmaceutical preparations(23 cases), specific behavior(20cases), taboo(19 cases), taking medicine(15 cases), fasting(11 cases) and external medical treatment(9 cases), etc. This shows a comparatively even distribution rather than the case of dividing the annual rituals into a period or purpose.

Conclusion : Medicine is the knowledge for preventing and treating diseases. However, the medical science and medical treatment of a traditional society show not a little difference from what we feel. The research on the annual cyclical rituals related to medicine is expected to be helpful to our perception of such a difference.

Key Words : Annual Cyclical Rituals, history of medicine, Korean Medicine

I. 서 론

질병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질병과 치료에 대한 통찰이 모아져 의학이라는 학문이 형성되었기에 인간의 삶을 떠난 의학은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그간 의사와 관련된 연구들은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관찬의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찬의서들이 민중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학지식 보급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서적 유통의 어려움, 한문이라는 언어적 제약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민초들은 의학지식을 간접적으로 밖에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찬의서 이외의 경험방서들, 개인의 문집이나 기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시풍속은 그간 민속학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한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분야이다. 의학에서 세시풍속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첫째, 구전과 습관은 때때로 문자화된 기록보다 더 확실한 저장장치가 되곤 한다. 과거의 전통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근래에도 정월 대보름이 되면 부스럼 병 없이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부럼 깨물기를 하고 귀밝이술을 마시는 풍속이 남아 있다. 둘째, 세시풍속은 실제로 행해졌던 것이기에 높은 진실성을 가진다. 의서에 등장하는 처방과 처방들의 경우, 당시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무엇이

자주 사용되었는지 고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세시풍속을 기록한 세시기(歲時記)에는 당시 일반적인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다. 세시기에 등장하는 처방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대중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의학관련 세시풍속을 통해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의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구대상으로는 의학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하나의 편으로 묶여 있는 조선 후기 경험의서 『의방합편(醫方合編)』 「월행(月行)」을 선정하였다. 『의방합편』이 조선후기 저작으로 당시의 의료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의학과 관련된 세시기(歲時記)가 드물다는 점에서 『의방합편』 「월행(月行)」은 가장 적당한 연구 소재이다.¹⁾

고찰에 앞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 사용할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의학과 관련된 세시풍속을 지시하기 위해 ‘세시풍속’과 ‘의학’을 결합하여 “세시의풍(歲時醫風)”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또 세시의풍에 대한 기록을 “세시의기(歲時醫記)”라고 지칭할 것이다. 이들 용어들은 학계에서 통용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본고에서 제안한 단어이다.

세시의풍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시풍속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를 ①행해진 시간, ②목적, ③방법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세시의풍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교신저자 : 오준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E-mail : junho@kiom.re.kr Tel : 042-868-9317
접수일(2013년 6월26일), 수정일(2013년 8월12일),
게재확정일(2013년 8월16일).

1) 『의방합편(醫方合編)』과 『의방합부(意方合部)』는 모두 동일한 서적을 가리킨다. 본문에서는 『의방합편』으로 통일하여 기재하였다.

1. 세시기(歲時記)와 『醫方合編』

세시풍속의 역사는 그 유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되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세시풍속에 주목하고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시풍속서, 기속시 등 이른바 세시기(歲時記)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주로 형성되었다. 유득공(柳得恭, 1749-1807)의 『경도잡지(京都雜志)』, 김매순(金邁淳, 1776-1840)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가 대표적이다.²⁾ 하지만 의학과 관련된 내용은 세시기 내 여러 곳에 산재되어 분석하기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의방합편』 「월행」은 매우 희소한 자료이다. 의학과 관련된 세시기를 모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학서적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의방합편』은 관찬의서와 대적점에서 있는 실용 의서이자 경험의서이다. 2권 3책으로 이루어진 의학서적으로 조선후기 만들어졌으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³⁾ 이 책은 『삼의일험방(三醫一驗方)』과 『촌가구급방(村家救急方)』을 골자로 하고 여기에 당시의 경험방(經驗方) 및 잡방(雜方)을 취합하여 만들어졌다. 풍부한 이론이나 고급스러운 처방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질병에 대응했던 민중들의 모습은 더 잘 드러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간행한 국역본⁴⁾을 저본으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자료를 대조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방합편』에서 ‘월행’은 조양문(調養門)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법[延年不老], 주의 사항[所忌], 월별 수행법[月行], 평소에 먹어야 할 음식[常時宜食物], 월별 금기 음식[月忌食] 등 평소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침들이 함께 담겨 있다.(〈표 1〉 참조) 이를 통해 월행법이 질병예방의 맥락에서 채록되어 형성되었을

을 알 수 있다.

세시풍속은 일반적으로 제의(祭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벽사(辟邪)나 기원(祈願)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⁵⁾ 세시의풍 역시 그러하다. 하지만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시풍속에 비해 이성적으로 이유를 제시하거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우선, 시기를 통해 세시의풍의 특징을 살펴보자.

| 제목 | 출전 | 내용 |
|-------|---------------|-------------------------------------|
| 延年不老 | 三意 (三意一驗方) | 솔잎[松葉], 천문동(天門冬) 등 무병장수를 도와주는 단방 처방 |
| 所忌 | 雜方 | 생활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 |
| 月行 | 雜方 | 월에 따라 행해야할 세시의기 |
| 常時宜食物 | 雜方 | 평소 가려 먹어야할 음식에 대한 설명 |
| 月忌食 | 雜方 | 월에 따라 먹지 말아야할 음식에 대한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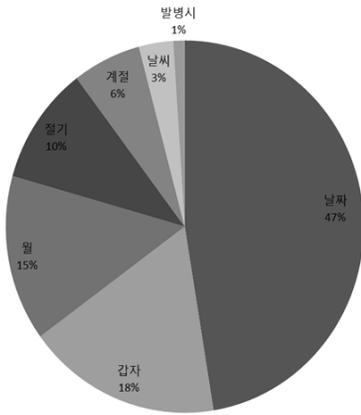
〈표 1〉 『醫方合編』 「調養門」의 구성과 내용

2. 시기를 통해 본 세시의풍

세시풍속은 일 년을 주기로 시간에 따라 반복되는 풍속을 말한다.⁶⁾ 따라서 ‘시간’은 세시풍속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의방합편』 ‘월행’에 등장하는 세시의기는 내용에 따라 모두 97가지이다.⁷⁾ 시행된 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5월 5일처럼 특정 날짜를 직접 제시한 경우(46건)가 가장 많았고, 축일(癸丑日) 같이 간지(干支)로 제시된 부분(16건)이 뒤를 이었다.⁸⁾ 태음태양력을 사용하였던 전통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양태와 부합되는 결과이다.(〈그림 1〉참고)

2)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朝鮮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012. 60. pp.185-186.
3) 정창현, 김용수, 장우창. 『의방합편(醫方合編)』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1). pp.163-173.
4)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p.218-225.

5) 박태호. 조선의 ‘세시기(歲時記)’에서의 사회적 시간 의식에 관하여. 사회와 역사. 2004. 66. p.296.
6) 박태호. 앞의 논문. p.294.
7) 내용에 중복을 허용한 값이다.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따로 셉하였다.
8) 복일(伏日)이나 납일(蟄日)처럼 간지(干支)로 시간 추산을 하는 경우도 포함



〈그림 1〉 시간에 따른 세시의풍의 분포

2.1 날짜를 기준으로 한 세시의풍

먼저 날짜를 중심으로 보면, 단오인 5월 5일의 세시의풍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칠석(七夕)인 7월 7일(7건), 중앙절(重陽節)인 9월 9일(3건)에 세시의풍이 집중되어 있었다. 5건의 세시의풍이 제시된 4월 8일이 석가탄신일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5월은 날씨가 무더워지는 시기로 병이 많아지는 달로 인식되어 왔으며, 농경사회에서는 파종이 끝난 시점이기도 하다. '수릿날',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하는 5월 5일 단오는 그 유래가 굴원(屈原)의 고사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적으로 더운 날씨를 대비하여 개인의 건강을 기르고 한 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날로 인식되었다. 오늘날에는 희석된 감이 있지만 전통사회에서 단오는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였다. 월행의 10%(10건)가 단오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시의풍에서 단오는 약 만들기 좋은 날로 여겨진 듯하다. 질병에 대비해 약재를 만드는 풍습이 절반을 넘는 7건에 달한다. 이 날 도인(桃仁)을 우유에 넣어 만든 고약은 곽란[癩] 치료에 썼고⁹⁾, 파두

를 마늘 속에 넣어 만든 알약으로는 학질[瘡]을 다스렸다.¹⁰⁾ 또 단오 하루 동안 별을 모아 말려둔 백반(白礬)은 여름에 벌레 물린 곳에 발랐으며¹¹⁾ 목이 버섯[木耳]을 채취해 두었다가 후폐(喉閉)에 대비하였다.¹²⁾ 내의원(內醫院)에서도 이 날 제호탕(醞醐湯)과 옥추단(玉樞丹)을 만들어 임금에게 바쳤다.¹³⁾

1년에 한 번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만난다는 칠석(七夕) 날에는 미용과 관련된 세시의풍이 보인다. 얼굴이 옥과 같이 희고 광채가 난다고 하여 이 날 복숭아꽃 가루를 닭벼슬에서 낸 피에 개어 얼굴에 바라는 풍습이 있었으며¹⁴⁾, 정오에 싱싱한 오이 잎으로 문지르면 얼굴에 난 사마귀가 사라진다고 보았다.¹⁵⁾ 남녀 사이의 정담에서 유래한 칠석을 외모 가꾸기에 좋은 날로 여긴 것이다.

가장 큰 양수(陽數)인 9가 두 번 겹쳐지는 중앙절은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로서, 이날의 의풍은 오래 사는 것과 관련이 많다. 이날 탄 구기자로 술을 담가 마시면 늙지 않으며 풍병(風病)의 걱정도 덜 수 있다고 한다. 또 이날 생강을 먹으면 눈을 어둡게 하고 수명을 줄인다고 하여 금기로 삼았다. 한 의학에서 양기(陽氣)는 삶을 의미하고 음기(陰氣)는 죽음을 의미한다. 조선후기에 태동한 부양론(扶陽論)도 이러한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장수와 관련된 중앙절의 의풍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세종 때부터는 늙은 대신들을 위한 잔치인

9)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0. (5월 5일)“五日, 取桃仁一百箇, 去皮尖, 於鑪鉢中細研成膏, 不得犯生水只以乳, 候成膏, 入黃丹三錢, 丸如梧子大, 每服三丸, 當瘡發日, 面北, 溫酒吞下, 井華水亦可. 合時忌鷄犬婦人.”

10)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1. (5월 5일)“五日, 取蒜一片, 去皮, 中破之, 刀割, 令容巴豆一枚, 去皮心, 納蒜中, 令合以竹挾, 以火炙之, 取其熱, 杵爲三丸, 遇患癩者, 服一丸, 不止復服一丸.”

11)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0. (5월 5일)“五日, 取白礬一塊, 自早曬, 至晚收之, 凡百蟲所咬, 以此未付之.”

12)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0. (5월 5일)“五日, 採桑上木耳白如魚者, 有患喉閉者, 搗碎綿裹, 漬蜜食之, 卽差.”

13)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Ⅲ.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p.231.

14)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0. “取桃花未收之, 七月七日, 和鷄冠血, 塗面, 三日日光白如素.”

15)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2. (7월 7일)“午時, 取生瓜葉七枚, 直入北堂, 面南立, 以拭面靨, 卽滅.”

기로연(耆老宴)이 주로 이날 열린 것도 우연이 아니다.¹⁶⁾

이에 반해 석가탄신일인 4월 8일은 먼 길을 떠나지 말고 마음을 편안히 하며 풀을 죽이거나 나무를 베지 말아야 한다고 하여, 석가모니의 뜻을 기려 살생을 금하고 마음 수양을 강조하였다.¹⁷⁾ 전통사회에서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음덕을 쌓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천(李樾)은 『의학입문(醫學入門)』 ‘음졸(陰鷲)’에서 건강을 기르는 방법으로서 평소 음덕을 쌓아야 한다고 하였고¹⁸⁾, 허준(許浚)은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심합도(虛心合道)’에서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라고 하였다.¹⁹⁾ 마음 자세와 관련된 세시의풍은 전통의학의 이러한 견해와 같은 맥락이다.

2.2 간지를 기준으로 한 세시의풍

간지(干支)를 기준으로 행해진 풍속들은 벽사(辟邪)의 의미를 띄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월 첫째 일일(寅日)에는 전염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의미에서 화장실 앞에 난 풀을 태웠고²⁰⁾ 2월 첫째 묘일(卯日)에는 머리를 감으며 병이 낫고 눈이 밝아지기를 기원하였다.²¹⁾ 농경사회에서 날씨가 기후와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간지는 운기나 운명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간지와 관련된 세시의풍이 좀 더 원시적인 형태로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이런 관념과 유관해 보인다.

2.3 절기를 기준으로 한 세시의풍

마지막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행해진 풍속도 있다.

절기에 행해진 세시의풍은 입추와 동지에 집중되어 있다. 한의학에서 사계절의 변화는 음양의 성쇠로 표현된다. 봄에는 양기가 상승하고 여름에 최고조에 이르러 음기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음기는 가을에 더욱 커져 겨울에 가장 많아지며, 음기가 극한에 이르면 양기가 다시 생겨난다. 이런 변화는 절기로 구체화 되는데, 춘분(春分)은 짝이 올라오듯 양기가 피어나는 시기이고, 하지(夏至)는 양기가 극성한 반면 음기가 처음 생겨나는 때이다. 또 입추(立秋)는 날씨가 서늘해지는 만큼 음기가 자라난 때이며,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동지(冬至)는 음기가 가장 왕성하면서도 양기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다. 동지와 입추에 세시의풍이 비교적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왕성한 음기 속에서 새로 생겨나는 양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의 기후가 인간의 기운과 상응한다고 인식하였다. 17세기 『침경요결(鍼經要訣)』에 등장하는 「천지인물기후상응도(天地人物氣候相應圖)」는 이를 도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2>참고)

절기와 관련된 세시의풍을 보면, 음기의 지배가 본격화 되는 입추일에는 적백이질을 치료하기 위해 적소두를 삼켰으며, 입추 후에 팔미환(八味丸)을 복용하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였다.²²⁾ 팔미환은 음(陰)을 기르는 육미환(六味丸)에 양기(陽氣)를 의미하는 부자와 육계를 넣은 처방으로 왕성한 음기 속에서 양기를 되살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연의 변화를 몸의 변화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인 셈이다. 동지 전후로 부부가 따로 거처 하고²³⁾ 말을 줄이고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한 것²⁴⁾ 역시 음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이다.

16) 국립민속박물관. “기로연 [耆老宴]” 한국민속대백과사전. [cited 2013 march 22]; Available from: URL: <http://folkency.nfm.go.kr>

17)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0. (4월 8일)“八日, 勿遠行, 宜安心靜念, 沐浴齋戒, 勿食百草, 勿殺草伐樹.”

18) 李樾. 醫學入門(영인본). 서울. 高麗醫學. 1989. pp.49-50.

19)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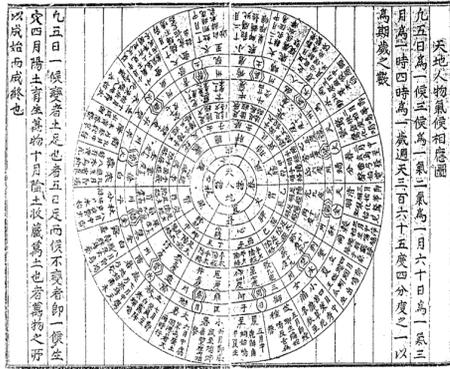
20)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8. (1월)“廁前草, 月初上寅日, 燒庭中, 一家不病天行.”

21)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9. (2월)“上卯日, 沐髮, 愈疾明目.”

22)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2. “立秋後, 宜服八味丸, 久服輕身不老, 每日酒下二十九丸, 稍覺熱即大黃丸一服尤妙. 六味丸加附子肉桂二兩. 當熱不可露身受風, 不可令人扇背.”

23)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4. “冬至前後各五日, 別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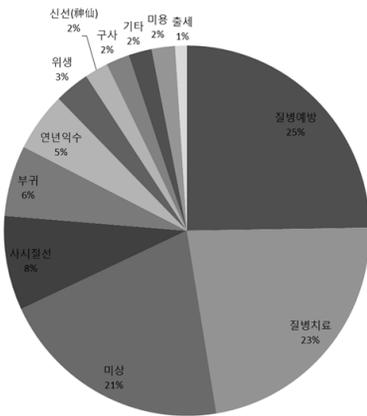
24)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4. “冬至日, 勿多言, 高居養神.”



<그림 2> 『鍼經要訣』의 「天地人物氣候相應圖」

3. 세시의풍의 목적

세시의풍의 목적은 질병예방을 위한 것과 질병 치료를 위한 것으로 나뉜다.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분명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거나 그러면 좋다고 표현된 경우가 3번째로 많은 19건이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둘을 질병예방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43건으로 전체에 절반에 해당한다. 질병치료가 목적인 경우도 22회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3> 참고)



<그림 3> 목적에 따른 세시의풍의 분포

3.1 질병예방을 위한 세시의풍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세시의풍은 복약과 갈

이 의료행위에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풀을 태우는 등 벽사의 의미를 가진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용된 단방 가운데에는 적소두가 눈에 띈다. 1월 1일 아침 적소두 27알을 삼키고²⁵⁾, 7월 7일에는 남자 7알 여자 14알을 삼켜²⁶⁾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경험방서에 자주 등장하는 붉은 팥[赤小豆]은 음식으로 사용되어 구하기 쉬우면서도 수기를 내보내 수종(水腫)과 창만(脹滿)을 치료하며 옹종과 고름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²⁷⁾ 이와 다른 맥락에서 귀신을 쫓기 위해 붉은 팥을 던지는 관습에 담겨 있듯 붉은 팥은 그 붉은 색깔로 인해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가을에는 황기를 환으로 만들어 먹었다.²⁸⁾ 황기는 기(氣)가 허해 생긴 도한(盜汗)·자한(自汗)을 치료하는 약이다.²⁹⁾ 통상 봄여름 땀이 많이 날 때 사용하는데,³⁰⁾ 가을에 복용하여 여름에 누설된 기운을 보충하고 추운 겨울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질병예방을 위해 복합방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춘분 후에 신명산(神明散)을 복용하고, 평소 이를 주머니에 넣어 차고 다녀 온갖 질병을 예방하였다.³¹⁾ 신명산은 노군신명산(老君神明散), 노군신명백산(老君神明白散), 노군신명백출산(老君神明白朮散), 신명백출산(神明白朮散) 등으로 불리며 온역(瘟疫), 시기온병(時氣溫病), 역려(疫癘) 등 전염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처방이다.³²⁾ 춘분 후에 신명산을 복용하는

25)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8. (1월)“元朝, 吞赤小豆二七粒, 面東, 一年不病.”

26)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2. (7월 7일)“取赤小豆, 男吞七粒, 女吞二七粒, 終歲無病.”

27)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682. (赤小豆)“主下水, 排癰腫膿血. 治消渴, 止泄, 利小便, 下水腫脹滿. …… 小豆, 性逐津液, 主水氣. 腳氣方最要. 行水, 通氣.”

28)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2. “秋服黃芪等丸, 一兩劑則百病不生.”

29)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723. (黃芪)“治氣虛盜汗, 自汗, 卽皮表之藥.”

30)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127. (黃芪)“凡自汗春夏用黃芪.”

31)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9. “春分後, 宜服神明散. 蒼朮吉更各二兩, 附子炮二兩, 烏頭炮四兩, 細辛一兩, 細末爲散, 絳囊盛帶方寸匕, 一人帶, 一家無病. 染時氣者, 新汲水調方寸匕服之, 取汗卽差.”

풍속은 그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중국 당대(唐代) 의서인 『천금익방(千金翼方)』에서 춘분 후에 길일을 골라 신명산을 복용하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조선 초기 의서인 『의방유취(醫方類聚)』에도 보인다.³²⁾ 온역과 역류를 치료하는 많은 처방들이 있지만, 이 오래된 처방이 조선 후기에 세시풍속이 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의학지식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그림 4> 참고)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납월(臘月)에는 인진환(茵陳丸)을 잘 만들어 두었다가 다음해 봄에 복용하여 한해 동안의 무병을 도모했다.³⁴⁾ 인진환은 열독(熱毒)이 몸 안으로 들어가 생긴 황달(黃疸)을 치료하는 약이다.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에는 호합인진환(好合茵陳丸)으로³⁵⁾,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장달환(瘴疽丸), 치자원(梔子元)으로 되어 있으며, 인진(茵陳) 치자(梔子) 대황(大黃) 망초(芒硝) 행인(杏仁) 상산(常山) 별갑(鰐甲) 파두상(巴豆霜) 두시(豆豉) 등 9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³⁶⁾

인진환은 납약(臘藥) 가운데 하나이다.(<그림 5> 참조) 납약은 약재 보존이 용이한 음력 선달에 다음해를 대비하여 만들었던 상비약들을 가리킨다. 선달 납일(臘日)에 내린 눈이 녹은 물을 납설수라고 하는데, 납약은 이 납설수로 만들었다. 납설수는 성질이 차서 전염성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몸의 열과 독을 풀어준다. 뿐만 아니라 가장 추운 시기에 만들어지는 물로서 약재를 변질 없이 보관하는 데에도 도움

을 준다.³⁷⁾ 이 납약은 주로 귀내에서 조제되어 궁중과 벼슬지들에게 분배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조선 후기에 납약이 사가(私家)에서도 만들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납약이 후대로 가면서 대중화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질병예방의 중요한 대상인 전염병을 보자. 「월행」에는 전염성 질환들을 ‘천행(天行)’, ‘시역(時疫)’, ‘여기(癘氣)’, ‘온병(溫病)’, ‘벽온(辟瘟)’, ‘온병(瘟病)’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방법들은 풀이나 약재를 태워 연기 내는 것이 많았다. 1월 첫 인일(寅日)에 화장실 앞에 난 풀을 마당 가운데에서 태운다든지³⁸⁾, 5월 5일 오시(午時)에 잡초 잎을 따서 태운다든지³⁹⁾, 선달 그믐날 집안에 쓰지 않는 약재를 모아 마당 가운데에서 태우는⁴⁰⁾ 등의 형태였다.

이 밖에 장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풍속에는 입추 후에 팔미환을 복용하는 것⁴¹⁾, 9월 9일에 탄 구기자로 술을 담가 먹는 것⁴²⁾, 9월 23일에 뽕잎 달인 물로 세수를 하는 것⁴³⁾ 등이 있다. 팔미환(八味丸)은 인체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명문화(命門火)를 돕는 처방으로⁴⁴⁾ 한의학에서 쓰임이 많은 처방이다. 구기자 역시 신기(腎氣)를 길러 정기(精氣)를 갈무리하는 약재이다. 한의학에서 칠규(七竅)의 총명함을 되찾는 것은 젊음을 되찾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뽕잎으로 눈의 풍사(風邪)를 쫓아 오래도록 눈을 밝게

32) 南京中醫學院.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191, 1125.

33) 김예몽 등(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院 校). 醫方類聚(3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0. (千金翼方. 雜方)“春分後, 擇吉日宜服神明散. 其方用蒼朮桔梗各二兩 附子二兩 炮烏頭四兩 炮細辛一兩, 同搗爲末, 絳囊盛之. 一人帶一家無病, 有染時氣者, 新汲水調方寸匕服之, 取汗便瘥.”

34)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4. “臘月, 好合茵陳丸, …… 春初一服, 一年不病.”

35) 許浚. 臘藥症治方.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10. pp.66-67. “好合茵陳丸, 治天行病急黃, 及瘴癘發黃, 熱病熱毒, 入裏發狂. 每三丸, 或五丸, 溫水吞下, 以吐利爲效.”

36)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514. “瘴疽丸. 治天行病急黃, 及瘴癘發黃. 茵陳, 梔子, 大黃, 芒硝各一兩, 杏仁六錢, 常山, 鰐甲, 巴豆霜各四錢, 豆豉二錢. 右爲末, 蒸餅和丸梧子大, 每三丸或五丸, 溫水吞下, 以吐利爲效. 『入門』. 得效方, 梔子元同, 即今茵陳丸也.”

37)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679. (臘雪水)“治天行時氣, 瘴疫, 酒後暴熱, 黃疸, 解一切毒. …… 藏淹一切果實, 良.”

38) 19번 각주 참조

39)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0. (5월 5일)“五日午時, 取雜葉燒之, 辟癘氣, 只燒木亦可.”

40)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5. “除夜, 威怒, 罵婢妾, 集家中, 所不用藥, 燒庭中, 辟瘟.”

41) 각주 21번 참조

42)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3. (9월 9일)“九日, 取枸杞, 浸酒飲, 不老, 治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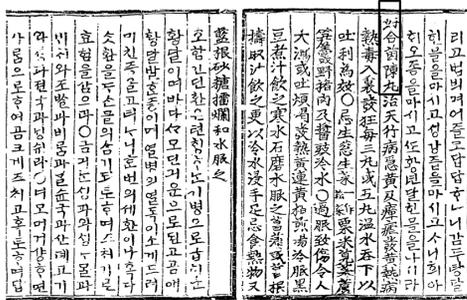
43)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3. (9월 23일)“二十三日, 桑葉湯, 洗目一次, 永絕昏暗, 神方. 一老人, 每年行之, 九十書細字”

44)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147 (八味丸)“治命門火不足 …… 又治老年水火俱虧, 腎氣虛乏, 下元冷懣, 腰痛脚軟, 夜多漩尿, 面黑口乾, 耳焦枯. 『入門』”

하는 것 역시 젊음 유지의 방편이었다.



<그림 4> 『醫方類聚』의 老君神明白散方



<그림 5> 『診解臟藥症治方』의 好合茵陳丸

3.2 질병치료를 위한 세시의풍

한편, 질병치료(22회)가 목적인 세시의풍은 주로 특정한 날에 약제를 만드는 것들이었다. 질병치료와 관련된 22가지 가운데 16가지가 질병 치료를 위해 지정된 날에 약제를 만드는 풍속이었다. 그 시기는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석, 그리고 납월(臘月)인 12월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월 5일과 7월 7일은 관련된 풍속이 가장 많은 날이기도 하다. 특별한 기운이 좋은 약제 완성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납월의 경우에는 납약(臘藥)이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약제 만들기 좋은 시기로 보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설수(臘雪水)를 이용하여 약제를 만들었다. 납월에 솟여우 쓸개를 취했다가 구급약으로 사용하거나⁴⁵⁾, 인진환을 만들어 황달이나 고질병을

45)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I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치료하였으며⁴⁶⁾, 청어 쓸개를 그들에 말려 두었다가 후폐(喉閉)와 같이 목구멍이 막힌 경우에 대비하였다.⁴⁷⁾

특이한 경우로 자손을 갖기 위해 시행된 풍속도 있었는데, 정월에 부부가 빗물을 1잔씩 마시고 입방(入房)하면 자식이 생긴다고 하였다.⁴⁸⁾ 정월에 처음 온 빗물은 봄이 시작되는 정월의 기운을 받았다고 인식되어, 양기(陽氣)를 상승시키기 위해 약을 달이는데 사용되어 왔다.⁴⁹⁾ 봄은 생발(生發)하는 기운을 품고 있다고 하여 정월 첫 빗물에 자식을 갖게 하는 효험을 기대한 것이다.⁵⁰⁾ 복숭아꽃이나 살구꽃을 2월 정해일에 따서 그늘에 말려 가루내 두었다가 무자일 정화수에 타 먹는 불임 치료 방법도 보인다.⁵¹⁾

4. 세시의풍 속의 다양한 방법

『의방합편』에 실려있는 세시의풍들을 방법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약제의 제조(23건), 특정한 행위(20건), 금기(19건), 약제의 복용(15건), 금식(11건), 외치(9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시기나 목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보다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낸다. 세시의풍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의 제조와 관련된 풍습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인 세시풍속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2007. p.224. “臘月，取雌狐膽，若有人暴死，未移時者，溫水微研，灌入喉即活。”

46)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I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5. “臘月，好合茵陳丸，療黃病痰癖時氣傷寒痰癘，療癩，神效。小兒，熱欲發癩，赤白痢，亦效。春初一服，一年不病，忌猪肉。”

47)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I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25. (납월)“取青魚膽，陰乾。喉閉及骨鯁，即以膽小許，口中含，咽即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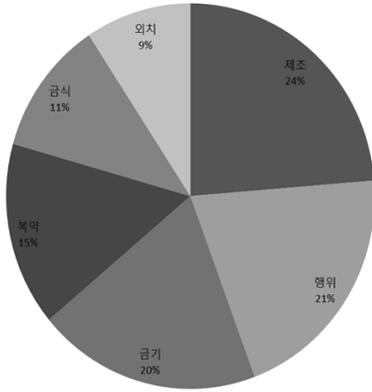
48)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I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8. “正月，雨水，夫婦各飲一盞，還房有子。”

49)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679 (春雨水)“即正月雨水也。以器盛接，煎藥服之，令人陽氣上升。”『入門』…… 其性始得春升生發之氣，故可以煮中氣不足，清氣不升之藥也。『正傳』“

50)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679 (春雨水)“正月雨水，夫妻各飲一盞，還房當即有子，神效。『本草』”

51)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I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p.219. “桃花花，二月丁亥日，收陰乾爲末，戊子日，和井花水服方寸匕，日三服，療婦人無子。”

다.(<그림 6> 참조)



<그림 6> 방법에 따른 세시의풍의 분포

대부분의 세시의풍들은 앞서 살펴본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징적인 부분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시의풍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금기어들이 많다. 이 금기들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멀리가지 말라는 문구이다. 2월 14일, 3월 16일, 4월 8일, 6월 24일, 9월 18일 등 5차례나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해롭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멀리가지 말라는 풍속은 일종의 날받이[擇日]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도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할 때에 날을 받아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침이나 뜸을 시술할 때에도 날을 받아 했을 정도로 생활 뿐 아니라 의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걷는 것’이었다.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 자칫 위험한 일이 되거나 돌아온 뒤에 몸에 무리를 주어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의서에서는 겨울에 먼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계⁵²⁾하거나, 멀리 다녀 생긴 피로로 요추를 움직이지 못하고 뼈가 마르며 골수가 줄어드는 골위(骨痿)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

52)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77. “養生書曰, 善攝生者, 無犯日月之忌, 無失歲時之和, 須知一日之忌, 暮無飽食, 一月之忌, 晦無大醉, 一歲之忌, 冬無遠行, 終身之忌, 夜不燃獨行房.”

하였다.⁵³⁾

II. 결 론

지금까지 『의방합편』 ‘월행법’에 실려 있는 세시의풍들을 행해진 ①시간, ②목적, ③방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의미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된 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보면 5월 5일처럼 특정 날짜를 직접 제시한 경우(46건)가 가장 많았고, 축일(癸丑日) 같이 간지(干支)로 제시된 부분(16건)이 뒤를 이었다. 특정 날짜는 전통사회에서 중시되던 명절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간지로 제시된 것은 벽사와 같이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풍속이 많았다.

둘째, 목적 측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43건으로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 세시의풍이 기본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는 통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병치료를 목적으로한 경우도 22건으로 적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16건은 질병 치료를 위해 지정된 날에 약제를 만드는 풍속이었다. 철에 따라 먹는 음식이 달라지듯, 시기에 따라 만드는 약제를 다르게 인식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셋째, 방법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약제의 제조(23건), 특정한 행위(20건), 금기(19건), 약제의 복용(15건), 금식(11건), 외치(9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기나 목적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보다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통사회의 의료는 현대인이 느끼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의 의료는 실생활과 확실히 구분되어 존재하지만, 전통사회의 의료는 생활 속에서 체화되어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세시의풍들은 그 좋은 방증이다. 오래된 관습처럼 보이는 세시의풍을 오늘날 돌아봐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사람들의 삶, 사회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전통의학지식이 가지는 가치를 제대로 되살려 낼

53)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296. “有所遠行勞倦, 逢大熱而渴, …… 故足不任身, 發爲骨痿.”

수 없으며, 현재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없다. 본 연구를 계기로 조선시대 대중 의료를 이해하는 단초로 세시의풍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백과사전. [cited 2013 march 22]; Available from: URL:<http://folkency.nfm.go.kr>

감사의 말씀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요사업 '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K13110)'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박태호. 조선의 '세시기(歲時記)'에서의 사회적 시간 의식에 관하여. 사회와 역사. 2004. 66. p.294, 296.
2. 정창현, 김용수, 장우창. 『의방합편(醫方合編)』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1). pp.163-173.
3. 조성산.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朝鮮 세시 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012. 60. pp.185-186.
4.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Ⅲ.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7. p.231.
5. 김예몽 등(浙江省中醫研究所, 湖洲中醫院 校). 醫方類聚(3分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0.
6. 南京中醫學院.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91, 1125.
7. 안상우 외. (국역)의방합부Ⅱ. 대전. 한국한의학회. 2007. pp.218-225.
8. 李旻. 醫學入門(영인본). 서울. 高麗醫學. 1989. pp.49-50.
9. 許浚. 臘藥症治方.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10. pp.66-67.
10. 許浚. 東醫寶鑑(영인본). 서울. 南山堂. 1998. p.75, 77, 127, 147, 296, 682, 514, 679, 723.
11. 국립민속박물관. "기로연 [耆老宴]" 한국민속대